

2020년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

블록버스터 게임부터 인디게임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.

블록버스터 게임과 프론티어 게임은 글로벌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RPG 게임의 향연이었습니다.

기능성게임 부문에서는 장애인 교육 등 실제 현장에서 쓰임새가 높은 콘텐츠가 다수 나왔습니다.

인디게임 분야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게임은 물론,

미디어 아트 등 예술성을 갖춘 작품까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.

대한민국 게임인의 건승을 빕니다.